

2010.03.24 미래정책연구실

## 1. USDA 보도자료(2010.03.23) 주요 내용

- 미국 농무부(USDA) Vilsack 장관은 USDA가 미 전역에 걸쳐 학교 영양행사(School Nutrition event)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발표함. 이는 아동영양법(Child Nutrition Act)의 국회 재신임에 따라 오바마 정권이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바를 알리기 위함임. USDA는 이를 위해 향후 굶주림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미국 내 어린이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또한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이 국민들에게 어린이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위해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올해 아동영양법의 재신임이 이루어진 만큼 어린이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하였다고 밝힘.
  - Concannon 농무부 차관은 이번 법안 재신임을 통해 학교 급식의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영양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고 발언함.
-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최근 소아비만 척결을 목표로 발표한 렛츠 무브(Let's Move!) 캠페인의 영향으로 아동영양법이 재신임을 얻어냄. 이에 따라 USDA는 미국 전역에 걸쳐 학교영양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임.
  - 오는 4월부터 5월 말까지 총 9차례의 학교영양행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USDA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직접 강연자로 나설 예정임.
  - 학교 영양 행사에는 식품업계 관계자, 교직원, 지역사회 및 시민

단체, 주정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까지 참여하도록 유도함.

- 현재 정부 운영 급식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Breakfast Program)을 통해 3,100만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점심을, 1,100만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아침을 제공하고 있음. 어린이들이 학교영양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수준과 생활환경 전반을 보다 건강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자료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